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0년도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에베소서 강해

## 성도를 위한 기도 (에베소서 1:15-23)

## Prayer for the saints (Ephesians 1:15-23)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 복을 빌어줄 때 특별히 신령한 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구원지식을 알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틀림없지만 구원에 대한 긴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확실해 집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When pastors pray for the saints, they must especially pray for their spiritual blessings. The Apostle Paul sincerely prayed that the saints in the Ephesian church would come to know God and have a knowledge of His salvation. We may be sure that God saves us. However, when we recognize the urgency and importance of salvation, we can also pray for others and be sure of God's grace.

### 1.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위한 기도중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18절)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눈을 밝혀 신령한 복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리고 영을 받아야 하며 또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인격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며 은혜의 깊은 차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 1. Pray in order that you may know God

When you do not know God rightly, you cannot glory Him. Therefore, Paul's first prayer for the saints is that they know God.

Paul prays that 'the eyes of your heart may be enlightened (v.18).' In other words, we can understand his prayer to mean that the eyes of our heart may be enlightened so that we may know the spiritual blessings that we have been given. And we must first receive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so that the eyes of our heart may be enlightened. Only then may we know Him rightly.

When we come to know God, we enter into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become personally involved in His will, and enter into a profound dimension of His grace.

### 2. 구원지식을 알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지식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이후에 자기를 상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에 이르렀는지 구원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만한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구원지식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실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 2. Pray in order that you may know the knowledge of salvation

Anyone who has met God not only discovers a knowledge of God but also comes to find himself. Our universal problem after Adam is that we have lost ourselves. How can we who have lost ourselves find salvation? Therefore, if we have a knowledge and assurance of salvation, we will become men powerful enough to overcome the world. Therefore, like Paul, we must pray that others may also come to a knowledge of God, and therefore have a knowledge of themselves.

Then, we must pray for the hope to which God has called us, which is the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in order that we may know how great His power is, which He has given us.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고 아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그에게 의지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므로 헌신하며 그를 위하여 살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알고,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은 늘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지식을 갖게 될 뿐 아니라 구원지식이 더욱 확실해지게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 지식과 구원지식을 가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Conclusion

Our Almighty God is now with us and has given us the hope of the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The way that we can experience this hope and come to know Him is by studying His word.

We must read the Bible and obey God. We must rely on Him, and devote ourselves to Him by praying for help. We must live for Him. Howeve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we must accompany Him in our lives. When we spend no time with God and yet say that we know Him, we are being illogical. When we say that children know their parents, and parents know their children, we understand that they are always together. So, when we share our life with God, we are not only gaining a knowledge of God, but we are also becoming more certain of the knowledge of our salvation.

By having this true knowledge of God,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ould become God's faithful children who glorify God and enjoy the riches of His grace and blessing which He has given u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제38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 준비 박차

2010년 8월 30일(월)~ 11월 1일(월)

8월30일(월)부터 시작되는 제38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신학 세미나는 "목회자의 리더십과 현대 사회"를 주제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10주간 진행되며 1교시는 김정우 교수가 창세기 강해(1-11

장)를 하고, 2교시는 주제에 따라 10명의 교수들이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목회자 신학 세미나에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은 사무국에 신청하기 바란다.

날짜	1 교시	2 교시	강사
8/30		교회성장과 목회자의 리더십(Leadership)의 상관관계	장성배 교수(감신대)
9/6		평신도에게 비쳐진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리더십	박정신 교수(송실대)
9/13		현대사회의 특성	박영신 교수(전 연세대)
9/20	창세기 강해	목회자의 리더십	이재기 교수(성서침례대)
9/27	(1-11장)	평신도들의 리더십	이강진 장로(전 해병대 총사령관, 한동대 강사, 서울교회)
10/4		여성 목회자의 리더십	이광순 교수(장신대)
10/11	김정우 교수	교회 대학(청년)들의 리더십 양성	박상진 교수(장신대)
10/18	(충신대)	농촌교회 목회자 리더십	한석봉 목사(전원교회)
10/25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 운영	이장로 교수(고려대)
11/1		소그룹 리더십	정재영 교수(실천신학대)

## 『서울교회 20년사』부록 공개 교정 계속 된다

지난 주 부터 시작 된 『서울교회 20년사』 부록 공개 교정이 급주에도 계속 된다.

서울교회 20년사 편찬위원회(위원장:하인선 장로)는 올 연말 발간예정인 『서울교회 20년사』부록 부분 1차 초고집필이 끝남에 따라 전 교인을 대상으로 직접 교정작업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다.

성도 여러분은 8층 만나 홀 안내 데스크에 마련된 부록 초고 완성본에 자신의 성명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성도의 성명, 직함, 섬김 연도 등이 제대로 표기 됐는지 확인하고, 교정요청사항이 있으면 교정 등록부에 교정주문을 해주기 바란다.



## 2010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우리교회 장학회(회장 박두호 장로)는 지난 7월 21일(수) 오후5시 장학회를 열어 그 동안 접수된 59건의 장학금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47명의 후보를 당회에 올려 선발된 2010년 하반기 서울교회 장학생에게 장학금 수여

식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열린다. 장학생 명단은 지난 주 발표 되었으며 해당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만민에게 전도-2010년기신교

# 말라위 검은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김은태 집사(9교구)

모니(안녕하세요),

목사님 기도와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속에서 저희 선발팀 27명은 교회를 출발한지 35시간만에 무사히 아프리카 말라위의 마칸디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검은 피부색을 제외하고는 우리



네 산천과 동일한 이곳입니다. 옛날의 수도 블랜타이어에 내려 40여개 박스의 짐을 찾고 김용진선교사님을 만나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를 2시간여 달려 마카디 교도소와 초등학교가 있는 곳에 도착, 150여명의 말라위서울교회성도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곳에서 발견한 우리 대원들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격의없이 2시간여를 예배하며 감사 찬양하였습니다.

이튿날 새벽5시, 인근의 마칸디 교도소에서 재소자 270여명과 함께 새벽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저희가 온몸을 흔들며 노마(복)를 치며 새벽에 현지 말라위 서울교회 담임목사님의 인도를 따라 30여분간 진행하는 예배, 대부분이 신발도

안신교 차가운 시멘트바닥에서 모포 한 장 깔고 자다가 일어나 드리는 예배였지만 저희가 부르는 찬양 모습은 이 세상에서 두 번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고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어 오전에는 모레 개교할 마칸디 초등학교에서 풍선과 치제와어 개교할 마칸디 초등학교에서 풍선과 치제와어

및 영어로 된 말씀카드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놀며, 6개 교실의 환경미화하고, 오후에는 이미용 봉사로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이어 인근 농장에서 옥수수 심으며 농장체험을 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대학부와 청년들이 눈물겹도록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한정된 시간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저희 단기선교단 모든 대원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하나



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전하는 일을 이 곳 말라위에 전하며 승전보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목사이중운 · 박사이중운 - 목회자의 길 ③

# 철저한 청교도적 삶을 살며

이중운은 초등학교 시절 단거리 선수였다. 고등학교 시절에 교내 마라톤대회 우승, 서울시 단축 마라톤대회 일반부 포함하여 2등을 했다. 그러나 목사의 소명을 받은 후 그는 좋아하던 운동도 그쳤다. 그보다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를 보러간 것 이외 영화관 출입은 없었다. 명작과 영소설 과목 이수를 위해 읽은 작품이외 삼류소설은 손에 든 적이 없었다. 이중운은 목사로 소명을 받은 후 철저히 청교도적 삶을 소년시절부터 실천해 왔다.

그 당시엔 목사가 되려면 일반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얻고 요즘같이 신학석사(M.Div.)제도가 없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신학교(5년제)를 졸업하면 목사고시 자격을 얻는다. 이중운이 섬기던 교회는 고려파에 속했다. 그래서 부산교신을 가야 목사가 된다. 그러나 당시 고신측 경인노회가 총회와 행정보류 상태인 지라 목사 후보생 추천이 불가능했다. 서울대 종교학과 신사훈박사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으나 종교학과는 목사되는 학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중운을 지도 하던 김창인, 최훈 두 분 전도사는 연세대 신학과 진학을 독려했다. 당시 고려파가 총회에서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총회신학교는 이단처럼 생각하여 고려파 교회에 속한 젊은 엘리트들이 연세대 신학과로 물러갔다. 이중운은 대학교 3학년 진학을 하자 4·19 학생혁명이 일어났다. 신과대학 신학회 회장은(김찬국 학과장) 교수님이셨고 이중운은 학술부장을 했다. 4.19의 와중에서 학내소요가 일어나 전교생이 스트라이커를 단행했을 때 이중운의 리더십이 발휘되어 신과대와 의과대만 수업을 하게 되었다. 연세 역사상 처음으로 철야기도회를 한달간 가지면서 학생들을 설득하여 학교를 안정시켰다. 언더우드 3세(원일환

와 백낙준 총장이 신과대생들의 강의실에 들어와 울면서 고마워한 적도 있었다. 후일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장도 하고 신과대학 동문회장을 역임하고 그리고 자랑스런 연신동문상을 수상하기도 한다.

이중운이 섬기던 총현교회는 교육을 강조했지만 대학부는 위화감이 조성된다하여 조직속에 없었다. 이중운은 대학부 시설을 교회에 건의하여 출발케 하였으나 교역자는 없었다. 대학부 토요집회와 주일 모임에 회장인 이중운은 직접 지도를 했다. 상도동 뒤편에 있는 천애불구원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장애인 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뜨거운 열심이 주일에 전차표를 미쳐 준비하지 못한 날엔 한강철교를 걸어서 건너 불구원에 아침 예배후 점심도 못 먹고 달려가 예배를 드리고 목욕을 시켜주고 저녁예배 전에 돌아오는 일들을 대학부 학생들과 계속했다.

이중운은 토요일은 금식을, 주일에는 천애불구원을 가지 않는 첫째주일에 복을 메고 현재 장충체육관 자리로 나가 바위 위에 서서 복을 쳐서 사람을 모이게 한 후 전도연설을 한다. 복을 치면서 총무로5가에 위치한 총현교회 저녁예배에 20-30명씩 몰고 온다.

그는 대학시절 교수의 영향을 체감했다. 그래서 그는 50세 이전엔 teaching ministry(가르치는 사역)을, 50이후엔 pastoral ministry(목회사역)을 하게 해



대학교 3학년때 캠퍼스에서 왼쪽부터 장중철 박사, 이중운목사, 김세연목사, 임종훈 박사, 신성중 박사(왼쪽)

달라는 기도를 시작한다. 교수가 되려면 박사학위를 가져야겠다고 판단하고 그의 노트엔 또 하나의 타이틀이 추가된다. 목사, 박사 이중운이다. 후엔 그는 전주대학교 총장이 된다. 그는 이때 이미 교수가 되면 총장이 되어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한다.이중운의 대학시절 별명은 이박사 어떤이는 이중장이라 불렀다.

4·19혁명 후 학내 소요가 계속되자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킨 후 그는 군에 자원입대한다. 이때만이라도 애국자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가려면 군입대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ROTC제도가 만들어지기 전 소위 SO(OO)로 시작되는군번이다. 논산훈련소 전반기 교육시 M1소총사격시험에서 교관이 갑자기 안경을 모두 벗으라 해서 낙제를 받아 심한 기합과 치욕을 당했다. 후반기 카빈사격시험에선 안경을 쓰고 사격을 시켜 특등사수가 되기도 했다.

(다음 호 계속)

## 나의 하나님

# 천상의 악기, Handbell

송재일 집사  
(그레이스 핸드벨 지휘자)

세상에서 가장 청아하고 맑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 흡사 천사의 목소리와 같이 그 음색 안에 은혜로움이 가득 묻어 나오는 악기, 그것은 바로 핸드벨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핸드벨 소리에 천사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있다면 링어들의 아름다운 '하모니(Harmony)'입니다. 완벽한 하모니와 천사의 날갯짓처럼 아름다운 링어들의 손놀림, 이것이 핸드벨을 상징하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레이스핸드벨콰이어 링어들은 끊임없이 연습을 합니다.

핸드벨 하나로는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두부장수의 종소리처럼 땡땡거리는 쇠소리가 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핸드벨이 어우러지면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합니다. 핸드벨은 다른 악기들과는 다르게 개개인의 음악적 자질보다도 합심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악기입니다. 아무리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합심하는 마음이 없다면 연주할 수 없습니다.

그레이스핸드벨콰이어는 2000년 창단한 이후 15명의 링어들과 지휘자는 예배음악 사역자로서 예배의 풍성함과 은혜로움을 위해 합심하여 두 손을 쉬지 않고 기도와 연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 내면의 깊은 감성을 끌어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은 오히려 우리를 즐겁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어 줍

니다. 찬양의 방법 또한 하나가 아닙니다. 노래로, 악기로, 우리의 몸으로 혹은 악기가 아닌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가지고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악기를 하지도 다루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찬양에는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찬양에 있어서 어떤 악기나 음악적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감사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충만한 영성은 그 어떤 찬양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레이스핸드벨콰이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핸드벨 찬양이라는 기회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며, 은혜로운 우리 삶의 빛입니다. 때문에 이중운 목사님의 말씀처럼 합심으로 찬양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핸드벨 팀이 교회 내에 더욱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에는 10월에 있을 정기연주회를 통해 핸드벨 찬양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해가 지날수록 더 많은 찬양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립니다.

여름수련회 초대이글

#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2부 여름수련회

## 홍창배 집사(청년2부 부장)

덥쇼! 얼음부수기와 우렁찬 목소리 그리고 행복한 웃음이 있는 여름수련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7명의 청년들이 모여 기도로서 준비하는 여름수련회, 매일 성경읽기와 릴레이 금식기도로 준비하는 여름수련회,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준비하는 '청년2부 여름수련회' 궁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8월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간 아가페 타운에서 개최되는 서울교회 청년2부(지도:문정훈목사님)의 여름수련회는 참가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행복과 말씀과 기쁨을 선물할 준비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시편 119:24)라는 주제로, 낮에는 시편 119편의 말씀 묵상과 조별 나눔을 통해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의 심령을 적시며, 이종윤 목사님, 정수길 목사님, 문정훈 목사님, 유문건 목사님의 폐부를

가르는 듯한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들의 가슴 속에 행복한 선물로 배달될 것입니다.

석양이 지는 저녁노을을 맞이하며 정유석 기도팀의 인도로 시작되는 기도모임은 기도를 통해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추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빛으로 시작되는 이조은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은 청년여러분을 열정과 감사의 자리로 안내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행복한 청년2부의 여름수련회 모임에 여러분은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서울교회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소프라노 3중창으로 드린다. 영국 트리니티음대와 캐나다 밴쿠버아카데미에서 공부한 김정아성도(가브리엘찬양대원), 이화여대음대와 이태리 로마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에서 공부한 신모란성도(할렐루야 찬양대원) 그리고 중앙대음대와 프랑스 파리 에콜노르말 음악원에서 공부한 최유현성도(가브리엘찬양대원)가 '승천(Duck Hold)'의 두 곡을 박승기성도의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폐 휴대폰 모으기 운동

우리교회는 대치1동사무소와 함께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원재활용 운동인 '폐 휴대폰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자원재활용을 위해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접수는 사무국에서 한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9일(월) 한장총 임원회, 기독교 학술원 이사회, 10일(화)kimchi 신학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각각 소집 또는 참여한다. 12일(목) 복음주의 신학회와 한국기독교 학회 연합 8.15 대성회 신학 학술발표회에서 주제강의를 한다.

■ 무지개회 회장으로 김영식 권사가 피선되었다.  
■ 수상 : 이동만 집사(2교구) 제23차 아시아 양복기술경진대회에서 개인 수상, 단체(한국대표) 금상 수상

■ 주간식당봉사 : 에스더 전도회(8.8) 한나 전도회(8.15)  
■ 금주의 식사 : 박정임 집사 · 박정금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 '사랑의 온도를 더 높여주세요' -현재 온도는 167도-

### -아가페타운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의 참여를-



오는 9월9-10일 양일간 개최될 2010 사랑의 바자에 앞서 8월 한달 동안 사랑나눔 A+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이번 주간에도 많은 성도들이 1% 나눔과 10% 절제약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주일 세 번째 캠페인

금함은 2층 본당 입구와 1층 사무국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고 1, 2, 3부 각 예배 후에만 모금을 실시하며 향후 기록보관을 위하여 모금에 참여하는 성도는 모금함 옆에 비치된 참여자명부에 자신의 교구와 이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란다. 한편 지난 주간 추가로 접수된 나눔과 절제약정에 동참한 성도명단은 다음과 같고 동참한 성도들은 8월 한달 동안 적립된 나눔과 절제기금을 9월 첫주 바자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 \*1% 나눔운동 참여약정자(괄호안은 운영기업명칭)

김성용 (한국농어촌공사) 김시환(보연통상) 김종철 박경정(박치과의원) 백승경(국과수) 송인수(에스엘원) 신용식(르브) 오치열(인제호텔) 이건희 이부자 이지동(이정형외과) 이현수(누네안경) 전봉길(하안나라 피부과) 주동재(비데전문가그룹) 최정환

#### \*10% 절제운동 참여약정자(괄호안은 가족 또는 후원부모 이름)

김보연(김시환) 김은비 김종철 김주엽 노상훈 박경섭-박재현-박재영(백승경) 박은평 서담은 백성은-백인실-백시진(백승갑, 박길자) 서준호 신용식 오승민 오승현 오치열 원용규 윤석원(현승회) 이민광 이부자 이영석 임선영 장필립 정휘제-정휘준(정수길) 조 희(이현수) 최은우 최정환

으로 실시된 '사랑의 온도계' 행사에는 167만원이 모금되었다.

앞으로도 8월 한달 간 매주 실시되는 사랑의 온도계 행사에 모든 성도들이 아가페타운건립을 위하여 기도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모

## 서울 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여름수련회를 위하여
4. 말라위 단가선교팀의 안전과 사역 위하여
5. 1교단 다체제 한국장로교회 거름나기 위하여

## ■ 교외오시는 길

